

**이 취재는** 적어도 내게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의 전도(顛倒)라는 측면에서, 어느 성에도 끼일 수 없는 소수집단인 '게이 들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 밖의 제기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의 측면에서 전혀 유쾌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차피 그 고통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세브란스 병원의 비뇨기과 의사를 통해 입수한 약간의 사전 지식과 몇 개의 전화번호로 부탁대고 덤벼 들었다. 그러나 번번이 기부당했다. 누군들 천박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할까? 여러 차례의 힘겨운 설득을 통해 간신히 한남동에 있는 '남자였던 여자', 아니 '내용은 남자'나 형식이 여자 인 한사람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나이 25살, 키 164cm, 늘씬한 몸매, 작업 디스코 걸, 이름 박미애(가명). 그의 방에서 나는 한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나는 부척 긴장해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혐오감 같은 것, 또는 신화 속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를 만나 보

는 듯한 범속한 호기심 같은 것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 그도 그런 것이 어느 대학병원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또 성도착증 환자 여부도 조사하지 않고, 남자를 여자보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그가 혼인하여 아이까지 둔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큰 문제가 된 기묘한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상상한 것은 아무래도 남 자티가 나는 여자꼴이었다.

"커피 드시겠어요?" 그는 여성적인 수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답답했다. 그가 차를 끓이러 주방으로 간 사이에 대충 방안을 둘러보았다. 주황색 시트가 덮인 스프링 침대, 까만색 전축, 텔레비전, 색색의 화장품이 가지런히 놓인 화장대, 잔디에 엎드려 예쁘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이 길러 있는 흰 벽, 장난감처럼 작고 따뜻해 보이는 굴빛 전등, 이 모두가 어우러져 곱게 꾸민 여느 처녀의 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차를 내려놓고 다소곳하게 마주 앉은 그에게 잠깐 웃어 주었지만, 내심으로는 참으로 곤혹스러웠다.

## 전생에 여자였던 사람

우리 사회가 가진 성에 대한 고정 관념과 편견이 깨어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 글은 거간·진리 시류 1991년 여름호에 실린 글이다. 15년의 긴 세월이 구석할 정도로 현재도 거의 달라지지 않은 상태지만, 사회 여러 측면에서 서서히 바뀌고 깨어지는 흐름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성 위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이 글을 다시 보고자 한다.

글 김응교 · 시인 문학평론가 · 의세대학교 문학부 객원교수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그는, 도발적이기까지 한 기녀 인  
이 분명한데도 생물학적으로는 분명 남자라는 사실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다. 표상과 실상의 괴리, 사전 지식과 현상적  
판단과의 괴리가 선뜻 조화되지 않았다.

그를 남자라고 보아야 한지, 여자라고 보아야 한지? 분  
득, 그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 3의 성' 이 아닐까 하는 생  
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혁명가들은 '사회주의적  
인간'의 출현을 주장했  
고, 프란츠 파농은 '새로  
운 정신'을 지닌 인간의  
출현을 심각하게 논의했  
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정신의 측면, 곧 세계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윤리

나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새로운 정신의 출현을 의미한다. 그  
렇기는 하지만 이 새로운 성의 출현이 새로운 정신의 출현  
을 촉진시키는 조짐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그것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 하는 생물학적인 분류를, 비록 그것이 의  
료과학에 의한 성의 전환이기는 해도 육체의 형식과 정신이  
육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고정관념을 새  
로운 차원으로 변모시키고 수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정신자체가 우리와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닌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그런 측면의 새로운 정  
신이 아닐지라도 어떤 새로운 종류의 정신을 형성시킬 불길  
한 조짐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생물 유전자들이 이룬 인간의 자궁 속에서 배  
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아닌 시험관아기를 출현시킨 것이나  
복제인간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들이 이러한 조짐을 뒷받  
침해준다. 그러므로 학습리의 멋진 신세계가 이미 시작되  
었고, 또 그러한 세계에 걸맞은 새로운 정신이 조만간 배태  
될 수도 있다.

신의 저주 또는 성장환경과 성직 경향 사이의 갈등 때문

에 생겨난 육체의 성과 정신의 성이 분리된 인간 막내애, 저  
기이한 모습을 나는 고통스럽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여자애들 놀이가 재미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여자애들 놀이가 즐거웠어요. 고무줄놀이,  
공기놀이가 재미있었어요. 축구 같은 사내아이 놀이는 겁  
이 나시 한 엄두도 못 냈어요. 언나웃이나 인나웃을 입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가끔 화장도 해보곤 했죠. 존 키서는 사내

그 곳에서 자유롭게 행복한 생활을 보내기는 했지만 날이 갈수  
록 그것이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지금  
도 분명히 주장하듯이, 자신이 결코 게이 바에 출입하는 호모들  
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자각이었다.

애들과 자면 기분이 좋았구요.”

누나라고 해야 할 부분도 그는 스스로없이 '인니' 라고  
했다. 그의 이러한 여성적 성향의 시발을 딱 부러지게 어느  
한 시점으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지는 못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아버지  
를 몹시 두려워했다. 불행하게도 그의 부모는 회복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병기를 했다. 그리고 그가 고등학교 1  
학년 때에 드디어 이혼을 하고 말았다. 심리학적으로는 동  
일시의 대상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는 점으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동네에서나 학교에서 “이게 기집애야, 미습이야”는  
투의 놀림을 받으며 자랐다. 별명도 '섹시'나 '미스틱' 이었  
다. 이러한 구박과 놀림은 수치심을 유발시킨다. 그런데 일  
반적으로 수치심은 그 요인이 되는 성향을 제거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물론 박미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차에 그는, '처녀막이 찢어지는 기분' 이라고 표현하는 성직  
'폭행' 을 당하게 되고, 이 사건이 그런 성향을 더욱 심화시  
키는 계기가 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앞집에 사는 고등학생 오빠한테 당했어요. 내가 여성에 가깝다는 거 그 오빠가 제일 먼저 눈치챈 거 같아요. 그 오빠의 성기를 만지면서 참으로 묘한 흥분에 젖었어요.”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성적 경험이었다. 모든 사람은 첫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을 확신한다는 심리학 연구의 성과처럼, 그도 그 경험 이후에 자신이 여성이라고 막연히 확신을 기졌다. 그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남자들에게 수없이 당했다. 물론 ‘오럴 섹스’나 ‘에널 섹스’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것이 고등스럽거나 키링, 남자들의 사랑을 몸으로 확인한다고 자신 때문에 즐겁고 황홀했다. 물론 육체적 쾌감이 아닌 정신적인 쾌감이었다. 그럴수록 그는 자신이 여자라는 확신을 더욱 더 구체화시켜 나갔다.

**여성으로서의 행복한 생활, 그러나 입영동지서**

그는 1985년 서울의 명문 남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의 어머니는 대학신학을 권유했지만, 더 이상 남자로서 사회에 적응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잡지에 난 기사를 읽고 그는 이태원에 있는 ‘열애 클럽’이라는 ‘게이 바’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그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곳에는 성적 구별이나 구박이나 놀림이 전혀 없었

기 때문이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이 그는 그저 ‘여자’였다. 물론 손님들 중에는 ‘호모’가 많았다. 몸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으면 삼자라도 같이 하고, 때로는 돈을 받기도 했다. 취직한 이후부터 맞기 시작한 여성 호르몬 주사 덕분에 놀라운 변모를 경험했다. 젖가슴도 꽤 부풀어 오르고 피부나 얼굴 윤곽이나 몸매가 서서히 여성적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기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 곳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기는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것이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지금도 분명히 주장하듯이, 자신이 결코 게이 바에 출입하는 호모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자각이었다. 다시 말해서 성교 시 이성 역할을 하는 남자가 아닌, 변태성욕의 대상이 아닌 정상적인 여자로서 남자로부터 사랑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각을 의미한다. 그러한 욕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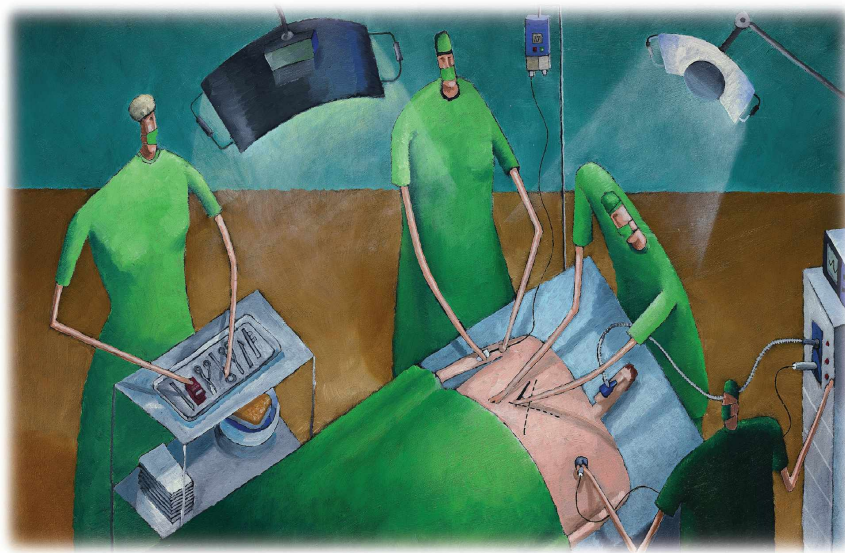
그러던 차에 그에게 느닷없는(필연적인) 시련이 다가왔다. 그는 1988년 10월에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동지서를 받았다.

“신검을 받는 날 다른 언니들(게이들)이 말해준 대로 화장하고 귀걸이 달고 매니큐어 칠하고 치마 위구 갔어요. 검사진 안에 남자애들이 팬티만 입고 줄을 서 있는데 옷을 벗을 수 있어야지요. 그냥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욕구하고야, 참 이쁘다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정말 군대에 가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너무 창피했기 때문에 남사 흉내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내고 하다 보니깐 일급 현역 환정을 받고 말았어요. 어떤 군의관이 다가와서 부푼 젖가슴을 만져 보면서 ‘이런 애는 입대하면 안 되는데 하고 중얼거려더라구요.’”

결국 그는 휴천 훈련소에 입대해야만 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훈련소에 갔던 날, 그때도 차림새는 마찬가지였다.

“정말 죽으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남자들 틈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 그냥 끔찍하기만 했어요. 순천향 병원에서 떼어준 진단서를 가지고 갔어요. 운동장에 남자들 수





'야배' 수술을 받아 성기를 잘라 냈다. 그리고 나서 병동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겨드랑이를 찢고 실리콘 백을 집어넣어 젖가슴을 더 오뎅하고 팽팽하게 만들었다. 이어 내친 김에 정신과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한 여성이라는 진단을 받아 1990년 세브라스 병원에서 유부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의 수술을 맡았던 비뇨기과의 이 박사는, 그

천 명이 줄을 서 있더라구요. 저도 그 틈에서 있는데, 단상에서 화성기로 보호자 되시는 분은 빨리 나가달라고 자꾸 방송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계급이 쎄 높아 보이는 사람한테 말했죠.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 신병이라고요. 그 말을 하자마자 필릭 놀라면서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문 잠그고 짹짹 말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는 '무서운' 군인 아저씨들의 눈을 피해 그 방에서 며칠간 대기하고 있다가 동한병원에서 나온 군의관의 판정을 받고 의가사 제대를 했고 다시 종전의 생활로 돌아왔다.

1989년 봄에 그는 자신이 혹처럼 달고 있는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들 시시때때로 곤혹스럽게 하는 징그러운 물건인 따름이었다. 마음에 드는 잘생긴 남자를 보고 성적 흥분을 했을 때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물건'이 발기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여자라는 확신을 어처구니없이 깨뜨려 버리기 때문이었다. 그것만 아니라 신체상으로도 '완전한' 여성이 됨으로써 호모가 아닌 정상적인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발코 여자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방에서 무면허 의사의 집도로

가 받은 질 성형수술(vaginoplasty)은 수술자의 대장 끝을 잘개하여 유부름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와 육백만원 정도의 수술비를 들여, 열흘간 입원해서 평소의 소위대로 '거의 완전한' 여자가 되었다. 이것으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법적으로도 완전한 여자임을 인정받고 싶었다. 다행히 그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 어머니의 협조로, 전신사진과 성전환수술 증명서와 정신감정 진단서를 제출하고 호적마저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듬만은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했다. 1990년 5월에 충남 천안지법 여수지원에 이복 변경청원을 제출했지만 기각되어 현재 항소 상태로 있다.

그 뒤 게이 바와 결별하고 디스크 장의 무희가 되어 타고난 솜씨와 아름다운 몸매를 마음껏 자랑하며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등근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춘다. 그의 한 달 수입은 백오십만 원쯤 되는데, 무희로서의 수입은 팔십만 원이지만 그의 미모에 혹한 남자들로부터 그 나머지를 얻는다. 사실 그는 남자들이 혹할 만큼 예뻐다. 그의 얼굴은 유명한 어느 여배우와 흡사했다. 안맞게 깊이 파인 쌍꺼풀, 육감적으로 도드라진 입술, 윤곽이 뚜렷한 콧날, 미끈하게 균형 잡힌 몸매. 그래서 그렇지 그도 잡지의 표지 모델이나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 한다. (다음호 계속)